뿌리내림

2024 WINTER NO.114

02 시작하며

구원의 길은 타자의 세계와 만나는 것
최영균 시몬 신부(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

07 시대의 窓

변화하는 시대, 성숙한 신앙의 길
토마시 할리크 몬시뇰

20 그리스도 사상 배움터

일본 그리스탄 시대 크리스마스(나타라)
이세훈 T. 아퀴나스(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마스 머튼의 영성
최영균 시몬 신부

신부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묵상)
최규화 세례자요한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45 연구소 일본 성지순례

시공의 기억을 넘어 그 聖스러움 안으로
장광미 가브리엘라

52 다은학당 가을학기강좌 후기

한국인의 성모 신앙 – 김준기(요한) 교수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집부

수강생 강좌 후기

56 칼럼

천상의 사도직 – 구원의 창립자 마리아 –

성 베테딕도의 메달(분도패)

60 도움의 손길

65 다은 갤러리

69 연구소 소식

구원의 길은 타자의 세계와 만나는 것

최영균 시몬
한국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소장

인간 공동체의 비극

시노드 교회 만들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노드 교회 혹은 함께가는 길이 일종의 교회 운동이 된 데에는 그러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에 일정 부분 교회가 적응하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다. 현대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교회문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 한 가운데서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빛은 자연스레 소멸해 갈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다. 그래서 시노드 교회 운동은 일념통천의 자세로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양상들이 보여주는 보편적 특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양한 개념어들로 표현된다. 예컨대,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수없이 많은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사회의 특성을 표현하는 이러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는 개인과 자유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시되고, 개성이나 특이한 개인의 성향이 예전처럼 사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다. 이러한 세상적 맥락과 교회의 공동체적 가치 혹은 전통 규범 사이의 충돌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음화의 길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렴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가치들을 보존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가 시노드 교회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다양한 개인들과 개별 조직의 욕망과 이익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제 공동체에서는 전쟁과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개인 내지 작은 집단들 안에서도 갈등과 부조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특성은 그래서 모순적이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존중되고, 동시에 다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거미줄의 교훈

이러한 비극과 관련하여 아키타가와 류노스케(1892-1927)라는 일본 작가가 쓴 『거미줄』이라는 짧은 우화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 사이의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산책을 하는데, 연꽃이 가득한 정원 연못 밑 저 아래 세상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는 다양한 죄인들이 어두운 심연에서 피범벅이 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이었다. 그 중 칸다타란 인물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과거에 도적이어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악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숲속을 지나가 발밑에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발견한

때였다. 순간 그는 거미를 밝으려다 “아니지, 아니야 비록 작지만 이것도 생명이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려주었다. 부처님은 그의 과거 이모습을 보시며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를 지옥에서 꺼내주기로 결심하였다. 부처님이 사방을 둘러보니 반갑게도 연꽃잎 사이에서 거미 한 마리가 은빛 실을 뽑아내고 있었다. “옳거니, 저 거미줄로 칸다타를 구해주어야겠구나” 하고 부처님은 손뼉을 쳤다. 며칠 뒤 칸다타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 까마득한 하늘로부터 은빛 찬란한 거미줄 한 가닥이 가냘프게 자신을 향해 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칸다타는 “옳거니, 저 줄

을 잡고 올라가면 지옥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쁨에 들떠 말하였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며 두 손으로 거미줄을 움켜잡고 있는 힘을 다해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올라가다 거미줄에 매달려 쉬면서 미소를 띠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연이 까마득히 아래에 보이자 그는 “되었어, 이젠 되었구나!”라며 그의 들뜬 마음을 표출하였다. 그런데 발밑에 아래를 자세히 보니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거미줄 끝에 매달려 마치 개미떼처럼 죽자사자 기어오르고 있었다. 칸다타는 한참을 내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을 뱉었다. “이 약한 거미줄은 나 혼자 몸으로도 끊어질 것 같은데 도대체 어쩌자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냐!” 칸다타는 있는 힘껏 아래를 향해 외쳤다. “야, 이놈들아! 이 죄인들아! 이 거미줄은 내꺼야! 누가 너희들 보고 맘대로 이 줄을 잡으라고 했어? 내려가! 내려가란 말야!” 바로 그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끄떡없던 거미줄이 칸다타가 매달려 있던 바로 그 부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뚝! 끊어져 버렸다. 결국 칸다타는 순식간에 지옥 암흑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부처님은 하늘 위 극락 연못가에서 이 모든 것을 모두 보고 계셨고, 칸다타가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는 몹시 슬퍼하셨다.

구원은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길을 통해서

칸다타의 교훈은 ‘함께 가는 교회의 길’이 일반적인 목적과 방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구원론적인 속성을 담지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시노달리타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회라는 이름 안으로 수많은 특이성을 갖는 개인들이 함몰될 수 있기에, 교회는 이번 시노드를 통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여기에 준거하여 경청하면서 교회 생활과 사명

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신자 개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교도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각자의 경험, 생각, 신앙 전통의 숙지 정도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과 사명의 길은 신앙 전통에 준거한 신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상호간의 확인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 또한 교도권은 교회 전통의 보고들을 신자들과 나눔으로써 우리 신앙의 사도적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 알려준다면, 크고 작은 교회 내 공동체들이 성령을 뜻에 부합하는 식별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교회의 길은 나 혼자 그리고 소수의 교회 그룹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안녕, 평화 그리고 구원의 빛을 추구하지만, 나 혼자 할 수 있고, 나 혼자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칸다타처럼 암흑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시노드 교회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바로 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는 하느님을 향한 여정이 바로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임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복음화)를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시노드 교회는 세상에 나와 다른 타자와의 만남 안에서 나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영감을 던져 주었으면 좋겠다. 뿌리내림

변화하는 시대, 성숙한 신앙의 길*

토마시 할리크
몬시뇰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으로 성찰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시대는 자연환경이라는 의미에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지만,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마음의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화의 속도, 범위, 깊이는 그간 확실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전반적으로 뒤엎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종교적 확신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적 확신도 흔들리며,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세상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상호연결 과정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한편으로

* 2023년 5월 1일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강연 원고임.

는 더 가까워지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차이점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세계화의 과정은 '지구촌'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철저한 다원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섞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화 과정의 현 위기로 인해 이제는 국가, 민족, 종교, 종교기관 사이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새로운 분열과 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가족 내 긴장과 심지어 가족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성과 유동성에 대한 혼란과 불안이 커지면서 복잡한 질문에 대해 간단한 대답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영합주의, 민족주의, 정치적 극단주의, 종교적 근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상품과 정보의 빠른 교환뿐만 아니라 감염병, 조직범죄, 테러, 폭력 등 악의 급속한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두려움은 악의 위험한 무기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종종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라 북쪽(북한)에는 – 그리고 그곳뿐만 아니라 –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의 커다란 장치인 정치 체제가 있으며, –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의 대부분을 공산 정권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세상의 변방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지역 분쟁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도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충분한 연대를 보여주지 않고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면, 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와 침략자들이 대담해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 오랫동안 언급해 왔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초강대국 간의 냉전이 다시 돌아와 세계 곳곳에서 유혈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이 탔던 배, 그 교회도 수많은 폭풍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히브리 성경(구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과 절망을 마주하여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살아 있고 깊고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단지 '교리'나 예식, 또는 관습의 체계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사회, 자연환경, 그리고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비롯해 우리의 인간성, 인간됨의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사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그것이 새로운 종교인지 새로운 철학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틀어, 특히 위기의 시기에 이렇듯 역동적인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어 왔습니다. 심각한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시대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를 **"함께 걷는 길"(syn-hodos), 즉 시노드 형태의 교회로 쇄신할 필요성을 선언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의 매일 시노달리타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대륙의 지역 교회에서 시노드 모임이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 세계 주교들이 참가하는 로마 시노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수준에서 열리

는 시노드 모임은 신앙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호 경청을 통해 오늘날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시대의 징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건에 대한 관상적 접근을 배워야 하며 '영적 식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신문,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세상의 이미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종 피상적이며, 때로는 이념적이고 상업적인 이익으로 채색되기도 합니다. 묵상과 관상의 실천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하느님의 언어인 '시대의 징표'를 변화하는 '시대 정신', 여론, 광고, '가짜 뉴스', 편견 등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예언직**을 보여주기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성령의 지혜로 현재의 사건들을 해석하여 두려움을 정복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종교 공동체는 치유하는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톨릭교회를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종교가 확실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해지거나 교회를 떠납니까?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시노드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많은 곳에서 교회는 '성직주의'라는 질병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여 교회를 엄격한 관료적 권력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권력과 권위의 남용은 성직자에 의한 성적, 심리적, 영적 학대 추문에서 특히 그 폐해가 컸습니다.

시노드의 개혁은 교회의 다른 형태, 즉 상호 의사소통 관계망으로서의 교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과의 소통을 심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주교, 사제, 평신도 사이의 소통이 깊어지고,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런 다음 다른 이들과의 소통, 즉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종교와 문화와의 형제적 대화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적이고 민주적이며 카리스마적인 요소로 구성된 한편의 교향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각각이 다 소중합니다.

***

신학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즉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살고 계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미완의 진행 중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이야기에도 해당하며, 교회의 역사에도 해당하고, 육체적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이야기에도 해당합니다. 교회의 신앙과 우리 개인의 신앙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지 그 여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 교회의 신앙과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유하지만,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앙과 수많은 표현들, 즉 성사와 전례, 신앙에 관한 강론 안에 살아 계십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봉사 안에서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경계를 넘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

들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교황에 선출되기 전에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가고자** 하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재의 정신적, 제도적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교회는 개방되어야 하며,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영적 구도자’를 위해, ‘경건한 이교도’를 위한 공간인 ‘이방인들의 안뜰’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했습니다. **종파**(sects)는 철저하게 준수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교에 어느 정도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들, 즉 **영적 구도자를 위한 공간**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라너는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40)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혁명주의자들과 종교재판관의 광적인 태도, 최후 심판의 천사 역할을 하며 밀과 가라지를 너무 일찍 가려내려는 시도를 주의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자신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많은 이가 사실은 **안에** 있고, 자신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많은 이가 사실은 **밖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교회가 어디에 있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비요, 성사이며, 표징(*signum*)이라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일치**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역동적인** 성사이며, 그 목표를 향한 **길**입니다.

전 인류 가족의 전체적인 하나됨은 역사의 끝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종말론적 목표입니다. 그때에야만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만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보고 비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과제는 이 목표에 대한 열망이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존재하도록 유지하고, 동시에 어떤 형태나 상태의 교회나 사회이든 간에, 또 어떠한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지식이든 간에 이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으로서 간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회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말론적 형태**를 항상 **구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교회**, 호전적인 교회(*ecclesia militans*)를 천상의 개선하는 교회(*ecclesia triumphans*)와 구별해야 합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완전한 승리의 교회(*ecclesia triumphans*)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형태의 우상숭배인 **승리주의**로 귀결됩니다. 더욱이 ‘호전적인 교회(*ecclesia militans*)’는 **승리주의의 유혹**에 저항하지 않으면 죄 많은 **호전적**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음을 **겸허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은 이제 교회의 사명이 영**적 영감과 변화의 원천**이 되어 모든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고 어떠한 무력의 사용, 어떤 형태의 조작도 **거부하는 것**임을 굳게 확신하게 합니다.

그 **사명**은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탐구, 대화 정신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인’이라는 자만과 오만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 중 누구도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한 책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인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이며, "나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이론이나 이념, 혹은 진리에 대한 개념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교리와 이념을 초월하는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살아 있고 개인적인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살아** 있지 않고 **길**이 아닌 진리는 이념에 더 가깝고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orthodoxy*, 正教)는 **올바른 실천**(*orthopraxy*, 正行)인 올바른 행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의 더 깊은 **세 번째** 차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체험**(*orthopathy*, 正感), 올바른 열정과 열망, 내면의 경험, 곧 **영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진리의 전체성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개별 신자들과 교회 전체의 영적 체험인 **영성**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깊이의 차원인 영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적 삶을 발전시키는 내면의 스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증언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교 영적 스승들은 피상적인 '겉 사람'은 '외부의 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속 사람은 내면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외부의 권위, 광고, 이념에 좌우되고 '여론'을 좇아가며 '세상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는 피상적입니다. 그들의 신은 실제로는 '그들의 소망과 두려움의 투영'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한 피상적이고 외적인 종교는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에게 마땅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기적 자아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해타산에만 머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오직 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물질적 부와 권력과 같은)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있을 때만, 유아적 환상에서 해방된 진정한 하느님, '벌거벗은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초월 경험을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개방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의 삶에서 살고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삶뿐 아니라 교회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자기중심성, 즉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신만 돌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적인 형태의 교회는 신뢰성과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현재 교회의 시노드 개혁의 목적은 교회의 제도적 구조를 새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개혁은 신앙생활의 쇄신, 특히 그 깊은 차원인 영성을 심화시키는 일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그리스도교는 움직이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되어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길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성숙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점차 진리의 충만함으로 인도할 협조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예로 드실 때, 우리가 어린이로 남아 있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종교가 유아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위선적이지 않으며 꾸밈이 없다는 점에서, 또 궁금해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어린이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어린 시절의 신앙에 대한 위기가 닥치는 것은 당연하며, 어린아이의 신발을 신을 수 없듯이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성숙한 신앙, 즉 비판적 사고와 의심을 통합할 수 있는 신앙을 깊게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신앙은 신비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수학적인 확신이 아니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달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은 신앙의 유익한 자매가 될 수 있으며, 믿음의 길에서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의심과 자유로운 질문이 없는 믿음은 근본주의와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의심해볼 능력도 없고 믿을 용기도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씁쓸하고 냉소적인 실용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신앙의 길에는 위기,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좁은 길, 하느님의 침묵도 포함됩니다. 많은 신비가가 말하는 개인적인 '어두운 밤' 외에도, '집단적인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저는 개인적인 삶과 교회와 세상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침묵'의 시대에 대한 성숙한 반응과 미성숙한 반응에 관해 썼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에 대한 미성숙하고 참을성 없는 반응은 무신론으로서, 이는 이 경험을 하느님의 부재 또는 '신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근본주의자나 광적인 종교인들은 낡은 이론이나 격정에 취해 '알렐루야'를 반복함으로써, 하느님의 고요한 선율인 침묵 위에 소리를 내지르며 무신론과 비슷하게 피상적으로 반응합니다. 희망과 사랑이 결합된 성숙한 신앙만이 인내의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는 참된 사랑, 참된 희망, 참된 신앙에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한국어로 출간된 신간 『그리스도교의 오후』에서 저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신앙의 성숙에 관해 썼습니다. 신앙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단순하거나 일방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 거룩함과 죄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저는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융(C. G. Jung)이 개인 삶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은유에서 영감을 받아 오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아침**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의 기본적인 특징을 발전시키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위기**인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피로, 졸음, 에너지 손실 또는 '소진(burn-out) 증후군'의 시기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건강, 직업, 파트너십, 신앙 그리고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숙기와 노년기인 **인생의 오후**는 평생의 성숙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경력과 부를 쌓는 것과 같은 '아침 활동'만 계속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완고해지고, 불안해하고, 우울해지는 '나쁜 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유를 그리스도교 역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근대 이전의 시대는 '아침'**으로, 교회가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구조를 구축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위기'가 왔는데**, 종교개혁에서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무신론의 부상에서 종교적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근대성에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풍토의 변화인 세속화는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변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그 역사에서 **'오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더 성숙한 형태의 그리스도교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많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교의 **역동적인 특성**을 되살리고 심화시킬 때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새로운 복음화**는 오늘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데, 살아 계시고 부활하시며 변모하시는, **보편적인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종종 우리 시야의 한계, 너무나도 좁은 관점과 지적 범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개념, 생각과 기대, 많은 형태의 신앙, 많은 형태의 교회와 신학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길을 따라 알지 못하는 미래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두려움과 용기 부족으로 쌓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고 구하려는 이 탐구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완전히 확실하게 하느님을 만났고 불확실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누군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하느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항상 의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확신보다는 주님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집을 떠납니다. […]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적혀 있는 오페라 대본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고, 걷고, 하고, 찾고, 보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탐구의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이며 영적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와 위기로 둘러싸인 도전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가능성이자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이며, 성숙한 신앙만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뿌리내림

토마시 할리크 몬시뇰, 철학박사, 신학박사, 명예박사. 1948년 프라하 출생

프라하 카를 대학교 교수, 체코 그리스도교 아카데미 회장, 세인트 살바토르 대학본당 사제, 워싱턴에 있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가치와 철학 연구위원회 부회장이다.

사회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하고, 프라하 카를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로마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산주의 시대에 그는 대학에서 강의가 금지되었고, 비밀경찰에게 "정권의 적"이라고 박해를 받았다. 1978년 에르푸르트에서 비밀리에 사제 서품을 받고, "지하 교회"에서 일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바츨라프 하벨과 긴밀히 협력했다.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후 체코 주교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비신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교황청 평의회 고문으로 임명했다(1990년). 베네딕토 16세는 그를 몬시뇰로 임명했다(2008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 그는 프라하의 카를 대학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다.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노틀담과 보스턴 대학의 객원 교수였다. 에르푸르트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마시 할리크는 인권과 영적 자유를 수호한 공로로 쾨니히 추기경 공로상(2003년), 현대 사회를 해석한 공로로 로마노 과르디니 상(2010년), 폴란드 대통령이 정하는 폴란드 공화국 공로 기사십자훈장(2012년), 템플턴상(2014년), 교황청 문화평의회가 수여하는 예술상(Artem ad Deum)(2017년), 성그레고리오 메달(2019년), 독일 대통령이 정하는 독일 공화국 공로 십자훈장(2019년), 코메니우스상(2020년) 등을 수상했다.

그의 책은 20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2011년 유럽 최고의 신학도서상, 미국 철학 부문 최고의 책 금메달(2017년), 종교 부문 최고의 책(2020년)을 비롯해 해외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

일본 그리스탄 시대 크리스마스(나타라)

이세훈 T. 아퀴나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초기 기리시탄[1]시대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나타라'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나타루(Natal)에서 변형된 발음이며, 이탈리아어로는 나타레(Natale)다.

1600년 전후 초기 그리스탄 시대 일본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은 애석하게 일부 선교사의 단편적인 자료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당시 그리스탄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문화적 전통을 여러모로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도 1549년 8월 15일 가고시마에 도착한 聖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 해 틀림없이 일본에서 처음 크리스마스 미사를 봉헌했을 것이다.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그때를 기준으로 2023년 올해 475회를 맞이한다. 일본 가고시마 교구의 주교좌성당 하비에르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전야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1) 16세기 일본 교회역사에서 그리스도교인을 「기리시탄(キリシタン)」이라고 표기하고 학술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그 유래는 포르투갈어 「Cristão = Christan」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필자는 「기리시탄」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일본어 가나에서 「으」 표기와 발음이 없어서 생긴 현상이며, 특히 박해와 탄압의 금교시기 「切死丹」, 「切支丹」, 「鬼理死丹」, 「鬼理至丹」 등, 절단, 죽음, 귀신 등과 같은 파사적인 부정적 한자를 차용해서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음이 가능한 「그리스탄」이라고 표기한다.

기록에 남아 있는 일본의 첫 크리스마스 미사

하비에르 신부가 일본에 도착한 이듬해 12월, 천황을 만나 위로부터의 포교허가를 얻기 위해 교토를 방문한다. 그러나 전국시대 극심한 하극상의 전란과 혼돈 속에 황폐화된 교토에서의 포교를 결국 단념하고 규슈 야마구치(山口)를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의 야마구치 동부지역 스오노구니(周防国) 영주 오오우치 요시타카[2](大内義隆)를 만나서 포교허가를 요청할 때 하비에르 신부는 유럽의 진귀한 선물을 준비했다. 시계, 안경, 거울, 유리제품, 오르골, 망원경, 그리고 전국시대 일본에서 진타주(珍陀酒)라고 불리던 赤포도주이다. 그것은 하비에르 신부가 미사주로 유럽과 인도에서부터 지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에 처음으로 포르투갈의 포도주를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1551년 하비에르 신부는 오오우치로부터 야마구치에서의 포교허가를 받고 일본을 떠난다.

야마구치 지역은 역사적으로 근세 그리스탄 시대까지 오오우치(大内) 가문이 지배해 왔는데, 이 가문은 쇼토쿠(聖徳)태자가 섭정한 611년 스이코(推古)천황 때 백제에서 온 성명왕의 셋째 왕자 임성(琳聖) 태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비에르 신부는 오오우치로부터 불교사찰이었던 다이도우지(大道寺)를 하사받아 이곳을 일본 최초의 교회이자 포교의 거점으로 삼았다.

2) 大内義隆(1507-1551) 전국시대의 영주, 오오우치 가문의 16대 당주로 규슈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1551년 하비에르 신부에게 다이도우지(大道寺)를 하사하여 포교를 허가했지만, 나가사키의 오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와 같은 그리스탄 영주와는 달리, 본인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하비에르 신부가 일본을 떠난 다음 해인 1552년, 하비에르 신부와 함께 일본에 와서 일본 포교에 일생을 헌신한 예수회 선교사 고스메 드 토레스[3]신부가 이곳에서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성탄절 미사를 성대히 거행했다고 한다.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위해 30 – 40km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가마나 말을 타지 않고 일부러 걸어서 미사에 참석했다고 루이스 프로이스[4]신부는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1552년 토레스 신부가 야마구치 교회에서 성탄절 미사를 봉헌했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첫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야마구치시는 이를 기념해서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야마구치로부터' 라는 슬로건과 함께 매년 12월 각종 행사와 콘서트 등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1560년대 초기 그리스탄의 크리스마스

이후 1560년대에 규슈 오오이타(大分)의 교회에서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성극(聖劇)이 공연되었다고 전해진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솔로몬王과 두 여인의 판결, 천사들의 어린 예수 경

일본 전통 정월장식 카도마츠와 크리스마스 리스

3) 토레스(또는 토를레스, Cosme de Torres, 1510-1570) 신부, 스페인 출신 예수회 신부로 인도 고아에서 하비에르 신부를 만나 함께 일본에 도착했고, 아마쿠사 시키에서 선종할 때까지 약 20여년간 일본포교를 위해 헌신했다.

4)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 1532-1597) 신부,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신부로 1563년 일본에 와서 나가사키에서 선종할 때까지 포교활동. 특히 어학과 문필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교회관련 많은 서간과 기록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일본사』는 일본교회사 연구의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배, 최후의 심판 등의 성극이 연이어 무대에 올라 공연되었고, 그레고리오 성가와 함께 실체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놀랍게도 일본어 성가가 합창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1560년대 초기 일본교회가 설립된 지역에서는 선교사와 신자들이 크리스마스 미사를 정성껏 축하하고 봉헌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선교사들의 중요한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미사와 설교, 성가와 성극,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모두가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히라도 이키츠키시마(平戸生月島)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성대히 지냈다고 전해진다. 1563년 4월 요한 페르난데스[5] 수도사의 서간에 의하면, '성탄절 밤 그리스탄 신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모아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복음설교가 있고 성가를 부르고, 신자들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나눔이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신자들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특기할만한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565년 9월 서간에서는 '이 지역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탄절 축제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지만, 많은 신자들이 가스팔 신부로부터 기쁨과 위안을 받았다. 로사리오의 기도를 올리고 성극을 보면서 밤을 함께 지냈다.'라고 적고 있다. 초기 그리스탄 시대의 이키츠키시마에서 행해졌던 성탄 풍경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다.

1566년 그리스도교가 크게 번성한 시마바라(島原) 반도의 작은 항구였던 구치노즈(口之津) 지역은, 한때 여러 곳에 교회는 물론 예수회 신학원과 활판인쇄소가 세워졌던 포교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소년소녀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고, 각 신자 집안마다 일본 전통의 정월 장식(카도마츠, 門松)을 문 앞에 만들어 내걸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인 정월장식과 그리스도교

5) Juan Fernández(1526-1567),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하비에르와 동행하여 일본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일본어를 습득하여 일본에 오는 선교사들의 일본어 교육에 진력했다.

의 크리스마스 화환(리스)이 융합된 풍습이라고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휴전

초기 그리스탄 시대 크리스마스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 있다. 당시는 전란이 극심한 전국시대로 같은 그리스탄이라 하더라도, 무사들은 자신의 주군인 영주에 따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치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크리스마스 휴전의 일화가 전해진다. 1568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마츠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가 오사카 사카이(堺)에서 진을 치고 적대하고 있었다. 영주인 오다와 마츠나가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양군의 무사들 중에는 그리스탄 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선교사 프로이스는 나타라(크리스마스) 전야에 양군의 신자들을 불러 모아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거행했다. 그리고 양군의 병사들 약 70여명이 식탁에 둘러 앉아 각자 갖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었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식사 시중을 했다고 기록했다. 적대한 양쪽 군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절을 갖추고 서로 응접했다고 루이스 프로이스 신부는 기록하고 있다. 다음 날부터는 다시금 적대하는 양군이 동서로 나뉘어 전투가 벌여졌지만, 일시나마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 불리는 평화의 한 순간이 있었던 것이다.

시마바라의 그리스탄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의 후원으로 그의 영지 아리마 히노에성 (日野江場) 근처에 1580년 세워진 세미나리오(소신학원)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학생이 늘어 1596년 예수회 연보에 의하면 재학생 숫자가 94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5명(포루투갈인 5명, 일본인 10명)의 우수 신학생에게 예수회 입회가 허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리마의 세미나리오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학생들의 손으로 구유가 만들어져 설치되고 성가와 기도를 봉헌했으며, 성탄 기간 중에는 신자와 비신자로 가득찬 성당에서 성극(聖劇)과 함께 그레고리오 성가를 합창했다고 전한다.

일본 26성인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1597년 12월 중순 도요토미의 명령으로 교토와 오오사카 등지에서 체포된 베드로 밥티스타[6] 프란치스코회 신부를 비롯한 그리스탄 신자들은, 모진 추위의 한겨울 한달에 걸쳐 교토로부터 나가시키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듬 해 2월 5일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자형으로 처형되었는데, 이들 일본 26성인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투옥되어 교토, 오오사카, 사카이 등지에서 조림돌림을 당하는 동안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밥티스타 신부의 기록이 남아 있다.

'주를 찬미합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지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도에 전념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앞에서 숭배를 행합니다. 각지의 많은 신도들도 우리를 찾아와 함께 축하하고 있지만, 감시가 심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신자들은 문 앞에서 성제(聖祭)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신자들의 바람으로 크리스마스 미사 성제를 새벽녘에 올렸습니다. 제단 위에는 푸른 장식을 놓고, 여러 크리스마스 성가를 함께 불렸습니다. 헤로니모 신부와 후안 수도사는 (이곳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나가사키에 갔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6) Petro Bautista Blasquez(1546-1597), 스페인 출신의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로 마닐라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593년 일본에 왔다. 주로 교토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산 페리페호 사건이 빌미가 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체포,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일본 26성인의 중심 인물이다.

… (중략) …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들은 사형을 면하고 추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이 되기를,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히데요시가 설마 서양인인 자신들을 처형할 것 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듯하다. 하지만 결국 나가사키로의 여정 중에 추가된 2명을 합쳐 26명은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한다.

다카야마 우콘[7]과 크리스마스

그 다음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608년 가나자와(金沢) 그리스탄의 봄(春)으로 알려진 복자(福者)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과 관련한 일화다. 도쿠가와가 도요토미를 제압하고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을 하게 된 세키가하라 전투(関原合戦) 이후의 상황이다. 도요토미에 의해 영지와 재산을 몰수당한 그리스탄 영주 다카야마 우콘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이전부터 우콘을 존경하고 그리스탄에 호의적이었던 가가번(加賀藩) 영주 마에다 토시이에(前田 利家)의 보호를 받고 가나자와에서 피신생활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가나자와의 난반데라(南蛮寺, 성당)에서는 규모가 큰 크리스마스 미사가 행해졌다고 전한다. 우콘은 근린 지역에 친필로 쓴 초대장을 보냈으며 이국적인 장엄한 의식을 보기 위해 여러 지역의 신자와 구경꾼들이 몰려왔다고 한다. 성가가 울려 퍼지고 엄숙한 분위기의 미사가 끝난 후 우콘은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 1610년대 이후부터 그리스탄 박해와 탄압이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하는 데, 그 전의 매우 짧았던 그리스탄의 봄(春)이었다.

7) 高山 右近(1552-1615), 전국시대의 그리스탄 영주로 많은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을 지원하고, 1614년 도쿠가와 이예야스의 그리스탄 금교령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추방되어 선종. 일본 가톨릭교회의 복자.

다카야마 우콘에 의한 그리스탄 시대의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록이 로마의 『예수회 문서』에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연구한 에비자와 아리미치 (海老沢有道)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08년 크리스마스는 다카야마 우콘에 의해 성대하게 계획되고 행해졌다. 신앙의 기쁨으로 넘쳐나고 신자들의 공동체의식과 단결심을 고양시키고,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는 계기로 삼았다. 박해가 닥칠 것을 예견한 우콘은, 박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나자와에 강건한 교회와 신자조직(콘후라리아, 신자들의 신심 자치 공동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야성제(深夜聖祭)를 마치고, 우콘은 음식을 대접하고 참가자 일동은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 당시 난방데라(南蛮寺, 성당)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의 가나자와시 오자키신사 (尾崎神社) 근처로 추정된다.

요네지와번(米沢藩)의 순교

1628년 12월 22일 요네자와번 영주 사다카츠(定勝)는 그리스탄 가신 바오로 니시보리 시키부(西堀式部)에게 배교를 강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니시보리의 처형을 명령한다. 니시보리는 처형되기 전, 신자들을 모아 마지막 장엄한 성탄제(降誕祭,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열었다고 전한다. 제단에는 십자가와 성모마

리아의 그림으로 치장하고, 로사리오와 메다이[8]를 펼쳐 장식하고, 모든 촛불을 밝혀 놓고, 바오로의 목소리가 힘차게 멀리까지 울려퍼졌다고 한다.

박해시대 잠복 그리스탄의 크리스마스

1614년 에도 막부의 금교령으로 철저한 박해와 탄압이 계속되면서 암흑시대를 맞이한 그리스탄 신자들은 크리스마스를 공개적으로 축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잠복한 그리스탄 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모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겉으로는 불교도 시늉을 해가면서 신앙을 지켜온 잠복 그리스탄의 후손들은 막부에 들키지 않게 숨어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했지만, 때로는 발각되어 박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잠복 그리스탄의 마리아관음

이키츠키시마에 전하는 잠복 그리스탄은 비밀리에 신앙을 간직하면서 예수를 품에 앉고 있는 마리아 관음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이들도 막부 관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전례력이 없던 시절 음력으로 매년 동지(冬至) 직전의 일요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냈다고 한다. 사제가 없고 미사를 봉헌할 수 없지만, 제단을 만들어 성상을 모시고 기도문을 외우고, 신자들 간에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전한다. 에도시대 잠복 그리스탄의 가장 중요한 교회력(教会暦)은 부활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겨울은 축하하고 봄은 슬퍼한다'라는 전승처럼, 겨울의 나타라(크리스마스)는 사순절에 버금가는 신자들의 대축일로 중시되었다. 잠복시대 숨은(隠) 신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온미(御身)의 나타라'라고 불렀다.

8) 예수상이나 성모상이 새겨진 메달(medal)

히사카지마 로야노 사코 감옥터 및 순교지

250년간이나 오랜 세월 숨어 잠복한 그리스탄이 신앙을 지켜 온 나가사키 고토 히사카지마 (久賀島)의 경우, 1868년 미즈노우라(水之浦) 지역 그리스탄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신자 지도자(水浦久三郎) 집에 모여 나타라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타라의 밤, 갑자기 관헌들이 들이닥치자 집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던 신자가 나팔을 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신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연회를 연 것처럼 꾸미고 술 취한 행세를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결국 모여 있던 신자들 모두는 체포 투옥되고, 비좁은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 속에 배교를 강요당했다. 끝내 배교를 거부한 42명의 신자들이 순교한 감옥터(로야노사코[9], 牢屋窄)가 지금도 순교지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고노이 타카시(五野井隆史)『그리스탄의 문화』요시카와고분칸(吉川弘文館), 2012년
- 다카기 가즈오(高木一雄)『関西의 그리스탄 순교지를 가다』, 성모의 기사 2005년
- 나가사키 문헌사 편『여행하는 나가사키학 그리스탄 문화 1, 2, 3, 4, 별책』, 2006년
- 다카츠키(高槻) 시립 역사관 편『다카야마 우콘의 생애』, 2013년
- 게르하르트 후버『일본 26성인 이야기』성모의 기사, 1993년
- 필자의 네이버 카페: "일본 역사와 문화 천주교회 나가사키 조선인"

https://cafe.naver.com/nagasakidiary

[연락처] tshlee21651@hanmail.net

9) 로야노사코(牢屋窄) 20㎡의 비좁은 공간에 200여명이 감금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 배교를 거부한 42명이 끝내 순교했다. 1969년 순교지에는 규모는 작지만 기념 성당이 세워졌다.

토마스 머튼의 영성

최영균 시몬
한국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소장

근대성(현대성)에 대한 반성

토마스 머튼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성가일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영어권에 속하는 학자이기에 대중적으로 다가가기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성사상이 유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대의 영적 갈증에 대해 그가 답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각인되는 현대사회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유의 규범을 제시한데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자멸의 길에 들어선 서구의 근대문화(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이 싹텄고, 이것은 유럽의 68혁명으로 대변되는 대항문화를 생산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합리적 형식주의적 삶의 방식,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타적 혹은 비판적인 근대성에 대립하여, 머튼은 대항문화를 영성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시민권 운동, 포괄적 다원주의,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영적 통전성을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뉴욕 지성인들의 엄밀함(합리,현실,언어)과 사막 교부들의 성실함(비합리,신비,비언어)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과 영성은 불교를 포함하여 동서양의 신비주의를 품고 있다.

참나를 찾아서

머튼은 인간의 목표가 물질세계의 소유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러한 삶의 형태의 중심에 있는 나는 거짓자아인 것이다. 머튼은 인간이 참된 나를 찾고 구할 때 거기에서 행복과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다. 참 자아는 하느님의 영과 일치한 '본래적 자기'이고 거짓자아는 하느님의 영과 분리된 '비본래적 자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내가 죄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거짓 자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볼 때, 이중적인 모습을 본다. 진짜 나와 거울 속의 나다. 마찬가지로 실체가 빠져 나와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린 나를 진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자아이다. 인간은 가공의 인격, 곧 거짓자아로 그늘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전능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있다. 이것은 돈, 명예, 인기, 권력의 소유를 통해 내가 다른사람과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힘이 셀 수 있다는 착각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이루면 일시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원적인 구원과 행복은 아니다. 이게 바로 전능에 대한 환상이다. 그리고 집단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환상, 일반적인 세속적 욕망 이외에 교회에서 ,거룩함, 착함(봉사), 의로움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한 좋은 가치행위들을 함으로써 개인적 위로를 추구한다면 이것 역시 거짓자아의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충만함 속에 머물수 있다. 어떻게 참나를 발견하고 살 수 있을까? 머튼은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하느님과 함께 홀로 머물 수 있어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세상과 관련된 욕망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을 때 하느님이 나와 접촉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나를 느끼는 것이다. 영성이란 하느님과 나의 관계다. 철학에서 진리란 주체와 대상의 일치다. 영성이란 하느님과 나의 일치를 목표로 한다. 결국 참나란 하느님과 내가 일치할 때, 즉 내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이 주는 어마어마하게 떨리고 매혹적인 신비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각, 그것이 바로 참나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 추구하는 목표다.

관상은 하느님을 알아차림으로서 변화된 나의 일상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우리는 고독해야 한다. 그것은 침묵과 사랑과 평화 속에서 풍요롭다. 참된 고독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할 소진되지 않는 선의 원천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 반면 거짓 고독은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두 고독은 모두 개인을 군중으로부터 구분한다. 그러나 참된 고독은 이 일에 성공하고 거짓 고독은 실패한다. 참된 고독은 한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리하여 자신의 선을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그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한다. 거짓 고독은 한 사람을 형제들로부터 분리하여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줄 수 없고 그들로부터 어떤 것도 자기 영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 고독할때 비로소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안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작업이 기도다.

모든 기도의 목적은 마음의 순결을 지향한다. 순결은 조건 없이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상황을 그분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도의 비결은 하느님 뵙기를 갈망하는 것으로서 갈망은 언어나 감정보다 깊은 차원이다.

이러한 깊은 차원의 기도를 관상이라 하는데 관상은 기도방법이 아니다. 사람의 지적 영성적 삶의 최고 표현이다. 우리 안에 생명과 존재가 비가시적이고 초월적인 원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생히 깨우치는 것이다. 관상에서만 깨어나는 깊은 초월적 자아와 우리가 보통 일인칭 단수로 동일시하는 피상적 외적 자아 사이에는 대립이 있고, 이 피상적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아님을 깨우치는 것이다. 피상적 나는 개체성이며 경험적 자아이지 하느님 앞에 존재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인격이 아니다. 관상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관찰과 관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나에 대한 일깨움이다.

관상에는 자유와 침묵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공간 안에서 가능성들이 표출될 수 있고 일상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새로운 선택이 드러난다. 이러한 공간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창조해야 하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체험이란 잠정적이거나 그저 고용한 시간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순수한 시간(Temps vierge)의 체험이다. 관상가는 하느님과 하나됨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삶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하느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관상을 가르칠 수 없다. 관상이란 내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차림으로써 얻게 되어 새로워진 삶의 양식 그 자체가 관상이다. 뿌리내림

신부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묵상)

최규화 세례자요한
수원가톨릭대학교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루카 1,26-38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묵상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고을에 사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난한 한 소녀에게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마리아가 이미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리아에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 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마리아라는 이 소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하느님의 바람 앞에 아무 생각없이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물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계획에 '예'하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오'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마리아가 자유롭게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창조주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인류의 구원계획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한 피조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며 그의 손에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느님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며 응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가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루카 1,39-56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묵상 주님의 천사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왜 갔을까요?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된 엘리사벳에게 봉사하고, 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과 함께 하느님을 모신 기쁨을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엘리사벳을 찾아갈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걸 실행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성령에 이끌려 기쁜 발걸음을 서둘러 옮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혼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게 아니지요.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살아있는 하느님의 궤', '살아있는 주님의 감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마리아의 발걸음에 온전히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착하여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건넬 때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 세례자 요한은 기뻐 뛰놉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자신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기뻐 뛰는 것이지요. 아기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가득차 기쁨을 표현합니다. 엘리사벳 자신의 개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차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봉사하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마리아를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성모님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한 주님으로 인해 세례자 요한과 엘리사벳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주님으로 인한 자신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구원자 하느님께서 당신 종인 자신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것과 자신에게 큰일, 즉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루카 2,1-7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묵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그 시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사람들이 모두 호적등록을 하러 자기 본향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이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지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길을 나섰는데 마리아는 임신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 고된 여정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등록을 하는 기간인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아기 예수님을 낳습니다. 피곤한 여행길에 아직 머무를 곳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아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요셉 성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아기 예수님께 많이 죄송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하느님이신 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머무를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물들이 머무는 마굿간에서 태어나 그들의 먹이통에 뉘여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심판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세상에 나온 첫 순간부터 가장 작은 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에겐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언제나 가장 작은 이들에게 잘 대해주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굿간에 태어나시고 부모님은 피곤함과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

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아주 작고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소외된 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성인의 피곤함과 미안함, 속상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직접 뵙고 만지고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께 직접 봉사하면서 이들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자신들에게 먼저 오신 하느님,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봉사를 먼저 받으며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맡기신 하느님께 소박하지만 정성어린 손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성탄의 밤은 이렇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찹니다. 오직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계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루카 2,22-39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묵상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시메온 예언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시메온은 자신의 두 팔에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감격에 차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시메온은 일생을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그분을 자신의 팔로 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시메온에게 '네가 지금 하느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두고 하는 시메온 예언자의 말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놀랍니다. 시메온 예언자는 이런 예수님의 부모님도 축복하고 예수님의 운명에 관해 말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아기 예수님의 운명에 함께 하도록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앞날에 찬란한 영광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험난한 날들도 있을 것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해줄 수 있겠는지 어머니 마리아께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는 하느님의 요청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구원 사업에 함께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메온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에도 함께 해달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시며 간직하시는 어머니는 이 요청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요한 19,25)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루카 2,41-52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묵상 예수님은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언제나처럼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축제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기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전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일행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을 찾아보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요. 친척과 친지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애를 태우며 떠나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 율법교사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요. 성모님은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아들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부모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열두 살이 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모님을 따라 나자렛으로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지요. 부모님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지혜와 키도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도 예수님이 자라는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는데 하느님께서도 함께 키우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하느님께서 함께 키우면서 예수님은 점점 더 자라납니다. 뿌리내림

시공의 기억을 넘어 그 聖스러움 안으로

장광미 가브리엘라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시편 46,11)

신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때론 뫼비우스의 띠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에 뭔가 새로운 열정을 간구하기도 하였다. (뫼비우스의 띠는 직사각형의 모형을 절반 뒤집어 붙인 형태로 어느 지점으로 계속 반복되면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현상)
그러던 중 한국그리스도사상 연구소에서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일본 나가사키 성지 순례일정은 새로움을 갈망하는 나의 바람과 일탈?을 자극하였다. 나름 이것도 신앙생활의 연장선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순례를 신청하였다.

눈으로 보면 관광이요 마음으로 보면 성지순례!!
일상생활의 멈춤에서 주님이 이끄시는대로 일본 가톨릭의 시작지인 나가사키 성지 순례 3박4일 여정을 나누고자 한다.

일본 가톨릭교회는 1549년 예수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규슈 가고시마에 상륙한 이후 시작되었다. 16세기 예수회원들의 선교 거점이었던 나가사키는 작은(小) 로마로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교 문화가 번성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1614년 도쿠가와 막부의 금교령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철저한 금교와 쇄국의 시기에도 선교사 없이 살아남은 그리스탄(그리스도인의 일본말) 후손들이 약 250년간 오랜 잠복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전통 풍습과 융합시키면서 가톨릭 신앙과 전례를 변형된 형태로 실천해왔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탄의 존재는 19세기 중엽 서구열강에 의해 개항한 후 세상에 알려지고, 상당수 신자들은 다시금 가톨릭 교회로 돌아왔다.

마침내 1873년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입국하고 재선교가 시작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한동안 가톨릭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계속되었으며, 대표적인 탄압사례로 나가사키 우라카미 지역 신도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이렇게 17세기 이후 엄격한 그리스도교 박해와 탄압 속에 세워진 나가사키의 교회 공동체들과 관련 유산은 때로는 불교와 신도神道 등 일본 재래종교와 습합하기도 하였고, 19세기의 교회 건축물은 서양기술과 융합된 일본식 토착화 건축으로 탁월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잠복(숨은) 그리스탄 후손들이 오랜 금교기를 거치면서 지켜온 독특한 종교 문화적 전통을 증거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선교사의 부재속에서도 잠복 그리스탄이 스스로 신앙을 이어온 그곳.

우리의 순례는 먼저 히라도. 그 시공의 거룩한 성스러운 곳에서 시작되었다.

1일차 : 히라도 다비라 성당

히라도 다비라 성당

히라도는 잠복 그리스탄이 자연의 산과 섬 등을 숭경하는 자연숭배사상이 겹쳐서, 자신들의 신앙을 은밀히 지켜온 마을이다. 이곳 다비라성당에서 우리는 첫미사를 함께 했다. 다비라 성당의 공식명칭은 가톨릭 다비라 교회로 세토야마천주당으로 불리는데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메이지 시대 파리외방전교회의 가레 신부, 드로 신부가 황무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세우자 주변지역 신자들이 이주하여 다비라 천주당의 신자가 형성된 곳이다.

2일차 : 야마다성당 순례 ⇨ 시츠의 오오노 성당 순례 ⇨ 시츠성당 ⇨ 드로 신부님 기념관 ⇨ 나가사키로 이동 ⇨ 국보 세계 문화유산 오오우라 천주당 순례

2일차에는 성당 순례가 많았지만 그중 시츠성당과 다시 나가사키로 이동하여 오오우라 천주당을 순례하게 되었다. 오오우라 천주당은 현재 일본에 현존하는 그리스도교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공식명칭은 일본 26성인 순교자 성당이다. 1862년 파리 외방전교회 지라르 신부님의 명으로 짓기 시작하여 1863년 프티장 신부가 나가사키에 부임하여 건설에 진력하고 1846년에 준공되었다.

오오우라 천주당

나가사키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천주당을 프랑스 절이라고 부르며 구경하러 왔다는데 일본의 전통과 프랑스의 건축이 융합됨이 느껴지는 곳이다. 당시 헌당식이 있고 한달 뒤 종교 역사상 기적으로 불리는 '신도발견'이 오오우라 천주당에서 벌어졌다. 나가사키 주변 잠복 그리스탄은 전설적인 일본인 수도사 바스찬이 예언한 "7세대가 지나면 신앙의 자유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말을 신앙생활의 버팀목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예언대로 7세대를 거쳐 기다려온 '신부를 발견'한 것이고 이후 우라카미 신자들은 사람들 눈을 피해 밤이나 새벽이나 천주당을 숨어 찾아와 각지의 가톨릭 교회의 복귀 기운을 고조시킨 원동력이 된 곳이다.

 # 3일차 : 니시타카 순교지, 26 성인기념관 ⇨ 우라카미 성당 ⇨ 원폭 평화공원 호우라이칸 별관 ⇨ 시마바라 이동 ⇨ 해변 족욕의 여가

26 성인 기념관은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순교지 니시자카의 언덕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이들은 예수가 죽은 골고타 언덕과 비슷한 니시자카에서 죽기를 원했고 그곳이 처형 장소가 되었다.

특히나 26성인의 순교비는 매우 인상적이였다. 그중 어린 아이도 있었는데 배교를 거부하고 죽은 12살과 부모를 달래고 죽은 13살 순교자도 보였다.

우리 순례자들도 26성인 순교비 앞에서 각자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하며 순교정신에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나가사키를 방문한 만큼 무엇보다 시대의 아픔인 원자 폭탄의 중심지인 원폭 평화공원을 방문후 나가사키 대교구의 주교좌성당인 우라카미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해변 족욕의 여가도 함께 즐기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26 성인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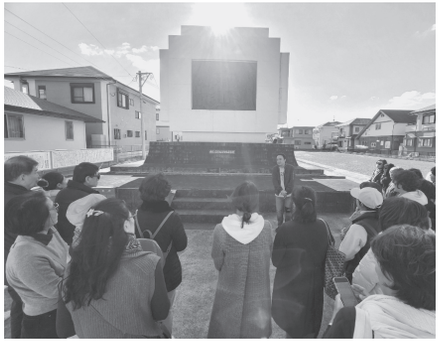
 # 4일차 : 운젠지옥 순례 ⇨ 시마바라 성당 ⇨ 오오무라 이동 ⇨ 오오무라 호우코바루 순례

이른 아침 일정은 기리시탄을 배교시키기 위한 극심한 고문과 처형이 벌어진 운젠지옥으로 옮겼다. 16명이 첫 순교를 한 이래 188인이 복자로 시복된 곳이 바로 운젠이다. 온천열탕의 온기를 품으며 10분정도 올라가면 순교한 33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순교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운젠지옥

이어서 시마바라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위해 오오무라로 발길을 옮겼다.

오우무라는 엄격한 금교 속에서 1657년 발각된 잠복 그리스탄 탄압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탄이 처형된 장소다. 그리스탄 탄압 사상 가장 큰 규모로 608명이 발각되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오우무라번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서 주변의 다른 번에 분산해서 투옥시키고 심문한 결과, 411명이 처형되었는데, 그 중 131명이 호우코바루에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오무라번의 그리스탄 탄압이 더욱 심해져 현재는 순교 현양비가 세워졌으며 호우코바루에는 조선인 순교복자를 포함한 순교비도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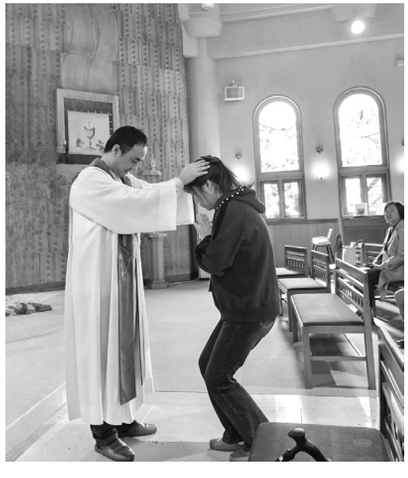


오오무라 호우코바루순교비

 # 3박4일 일정의 마지막 미사

– 시마바라 성당

연구소 최영균 시몬 소장신부님이 순례중 약간의 다리 부상 투혼에도 우리 모두에게 안수를 해주셨다.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금상첨화의 순례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되어졌다.



 # epilogue

시공의 기억을 넘어선 그 성스러운 곳의 발자취를 마치며.. 역시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보화임을! 일본 순교자들의 순교 영성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교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역사 덕분임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다.

이번 성지 순례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그것 또한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이신 하느님이 함께 계시며 늘 새로움을 더해주신다는 신앙감각을 키울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잠시 일상의 멈춤에서 하느님을 찾아나선 일본 성지 순례를 계획해주신 연구소 최영균 시몬 소장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3박4일의 여정을 이끄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뿌리내림

한국인의 성모 신앙

가톨릭 인문학교 다은학당 가을학기 강좌
『한국 신화에서 찾는 성경의 상징- 김준기(요한) 교수(경희대학교)』 중에서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편집부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성당에 오거나 나갈 때 항상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공경의 인사를 드린다. 또 전례력으로 5월을 '성모성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고 있으며, 1월 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포함한 성모 대축일과 여러 축일과 기념일이 있다. 그 외에도 성모마리아에 대한 많은 신심 행사들은 성모님에 대한 공경의 신심을 나타내는 천주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성모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구원 역사에 가장 깊이 관여하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모님께 공경을 드리는 교회의 전통을 인정할 것이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한국 신화에서 찾는 성경의 상징』강좌를 통하여 확인해 본다.

다음은『한국인의 성모 신앙』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경주에서 출토된 마리아 관음상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불리는 소상(塑像)이 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배 모양[舟形]의 광배를 두른 이 소상에는 자애로운 표정의 신모(神母)가 의연히 앉아있고, 그녀의 품에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앙증맞은 아기가 안겨져 있는 모습이 양각되어 있다. 이 소상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측의 설명으로는 성모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성모의 생김새는 성모마리아보다는 관음보살을 닮았다. 그래서 이 소상을 마리아 관음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소상의 형태는 틀림없이 불상이지만, 이것을 불상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관음보살이 아이를 안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1936년 경주에서 출토되었다는 이 마리아 관음상에 대하여 박물관 도록에는 '경교(景敎)와 불교의 교류 및 경교의 한반도 유입을 보여주는 중요 유물'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A.D. 7세기 경 고대 동방기독교가 당나라에 전파되어 경교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바 있으므로, 불교와 융합한 형태의 경교가 한반도에도 유입되었을 개연성은 다분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추정으로 이 소상이 주는 의문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교의 바탕이 되는 네스토리우스교(Nestorianism)는 마리아의 성모설을 부정하는 종파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소상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경주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신라에서는 신모에 대한 이미지가 친근한 이미지였다. 당시의 경주에는 남편 없이 잉태하여 혁거세를 낳았다는 선도산 신모의 이야기가 그녀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널이 유포되어 있

었다. 신모에 대한 신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된 보편적 신앙이므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마주칠 수 있듯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고구려는 국중대회인 동맹에서 유화와 주몽을 국가의 신으로 섬겼는데, 유화는 주몽을 낳은 신모의 자격으로 추앙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부터 신모상이 존재했다. 고구려에서 유화의 신상을 모셨다는 사실을『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리아 관음상이 7~8세기 경 통일신라 때의 유물인지, 국외에서 수입된 것인지 등의 궁금증은 시원스레 해소할 수 없을 듯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상을 간직하고 바라보았던 고대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전통적인 성모에 대한 신앙이 깃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에게 성모 신앙은 외래에서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니라 고유의 것이었고,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온 민간신앙이었다.

이 강좌에서 느낀 점은 한국 신자들의 성모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 정서에서 내재되어 있는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본 것이다. 뿌리내림

수강생 강좌 후기

김준기 교수님 ── 찬미 예수님! 다은학당 강의는 제게 소명이자 행운이었습니다. 삼십여 년 동안 공부해 온 한국 신화에서 주님을 드러낼 길을 찾으라는 것이 저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제 강의를 경정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 강의는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오준희 크리스티나(수강생) ── 옛날부터 전승되어온 설화, 전설 등도 성경과 신화가 종교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좌를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다은학당에서 재미있고 알찬 내용의 강의를 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드립니다.

공미희 크리스티나(수강생) ── 동, 서양의 수많은 신화와 설화를 준비해오신 많은 자료와 함께 옛날이야기 듣는 것처럼 재밌게 들었습니다.막연히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민속신앙과 고대국가의 건국신화 등을 다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동, 서양의 성모사상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영웅을 신격화하여 판에 박힌 듯한 신화 이야기를 들을수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이 다시 한번 큰 울림으로 다가오며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강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경임 리디아(수강생) ──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신앙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다은학당에서 좋은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토착화를 깊게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천상의 사도직
- 구원의 창립자 마리아 -

성바오로 협력자회 회보 中,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 발췌

마리아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 마리아는 가장 먼저 강생을 믿으셨다.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은 바로 마리아셨다.

성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1,45)이라고 했고,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 스승, 우리 사제, 우리 임금이 되셨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이다. 이는 곧 3월 25일에 시작되어 교회의 모든 이에게 빛과 힘과 활력을 주는 나사렛 발전소의 축복의 전류에서 이탈하여 배제되는 것이다. 전선을 잘라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듯이 악마는 이단의 씨앗을 심어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세상에 처음 나타난 이단은 사탄이다. "너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창세3,5) 많은 철학자와 문학 애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악마의 부추김에 속아 이성을 여신화하여 신봉하기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교회에서 이탈한 그들은 어둠속을 헤매며 여러 갈래의 길로 흩어져 빛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불행한 이들은 이단자다. 마리아는 이단이 새로 생길 때마다 개입하셨다. 마리아는 이단이 새로 생길 때마다 개입하셨다.

이단은 악마다. 마리아는 이 악마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마리아는 예수그리스도를 낳으셨다. 마리아는 진리의 어머니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진리다."(요한14,6)라고 말씀하셨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마리아께서 빛을 가져와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동정녀이시다... 마리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인류의 분배자시다. 따라서 주요 교의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나온다.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교의를 읽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믿는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마리아를 "신앙의 총원장"이라고 한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는 마리아를 "정통 신앙의 요새"라고 한다.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는 마리아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드렸다. 성 소프로니우스는 마리아를 "이단의 근절자"라고 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지키는 수호자들을 끊임없이 도우신다.

성 아타나시오는 마리아를 "아리우스주의 망치"라 했고, 성 레오는 "에우티케스주의 망치", 성 아우구스티노는 "펠라시우스주의의 망치", 예수회를 창설한 성 이냐시오는 "개신교의 망치", 성 비오 10세는 "현대주의의 망치"라고 했다. 이처럼 가톨릭 진리를 수호한 신앙의 기수들은 마리아께 기도했고, 마리아는 그들을 이끄시어 당신과 함께 승리하도록 하셨다. 뿌리내림

성 베네딕도의 메달(분도패)

출처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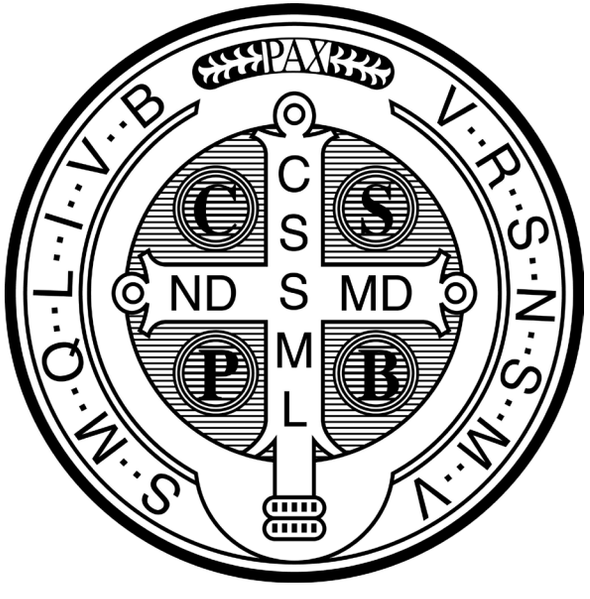
성 베데딕도의 십자가 메달은 1880년 성 베네딕도 탄생 1400주년을 기념하여 이탈리아 몬떼까시노 수도원(베네딕도 성인이 설립하고 돌아가신 곳으로 전 베네딕도회의 발상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메달은 독일 보이론 수도원의 렌쯔 신부(P. Lenz)의 작품으로 빠스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십자가의 구원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명 '분도패'라고 칭했다.

1) 매달 앞면

- 성인의 오른손에는 십자가, 왼손에는 규칙서, 그 아래에는 까마귀와 독배(독이 든 잔)가 있다.
- 성인의 좌우에는 "CRUX SANTI PATRIS BENEDICTI" 즉 "사부 성 베네딕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성인의 발아래에는 "EX S M CASSINO MDCCCLXXX" (1880년 거룩한 몬떼까시노 산에서)가 새겨져 있다.
- 가장자리에는 "Ejus in obitu nostro presentia muniamur" (우리 임종 때에 성 베네딕도께서 함께 하시어 보호 하소서"라고 되어 있다. 성인은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선종하셨다.

2) 매달 뒷면

- 십자가 안에 수직으로 "CSSML = CRUX SACRA SIT MIHI LUX"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빛이 되소서)라는 기도가 새겨져 있고, 수평으로는 "ND SMD = NON DRACO SIT MIHI DUX" (악마가 나의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새겨져 있다.
- 십자가의 네 모서리에는 "CSPB : CRUX SANTI PATRIS BENEDICTI" (사부 성 베네딕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PAX" (평화)라는 모든 베네딕도회의 모토가 새겨져 있다.
- 가장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왼쪽아래에서 위로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들어 있다. "VRSNSMV : SMQLIVB =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de Mihi Vana : Sunt Mala Quae Libas Ipse Venena Bibas", 즉 사탄아 물러가라! 헛된 생각을 하게 하지 말고 네가 마시는 것은 네 악이니 네 독이나 마셔라.



도움의 손길

2023. 7. 1 ~ 12. 31

:: 후원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 국민 : 819-01-0122-995
- 농협 : 207170-51-024262

(후원자분을 위해 매주 화, 목, 주일 미사봉헌해드립니다.)

후원금을 봉헌해주신 분들입니다.

가을순, 강병희, 강지연 바울라, 강향식 비비안나, 견복순 M.막달레나, 경미정 엘리사벳, 고은임, 고재영, 고한나, 공미희 크리스티나, 공연홍 헬레나, 공은경 세실리아, 공희자 글라라, 곽선희, 권수경 베로니카, 권숙희, 권순단, 권승순 데레사, 권용환 엘리사벳, 권재호,재훈, 기연신, 김경보 웬델리노, 김경신, 김경애 율리아, 김경일, 김경자 마리아, 김경자 아녜스, 김공수 라우렌시오, 김광주 필립보, 김금자 루시아, 김기숙 도미니카, 김기정 요안나, 김기창 신부, 김도영, 김란수 세실리아, 김말례 논나, 김매자, 김명순 소화데레사, 김명신 로사리아, 김명자 마르가리타, 김명자 엘리사벳, 김명현 마리아, 김명희 소피아, 김무활 베드로, 김문자 루치아, 김미경 세라피나, 김미경 아가다, 김미선 리디아, 김미영 헬레나, 김미자, 김미자 마리안나, 김미자 아나다시아, 김민주(김민서), 김민주(김보빈), 김백겸 사도요한, 김부경, 김부영 마리아, 김상숙, 김상희, 김서영, 김서원 프란치스코, 김선 마리아, 김선래, 김선명 데레사, 김선희 레지나, 김선희 안젤라, 김성미 세실리아, 김성신 크리스티나, 김성진 엘리사벳, 김세중, 김소라 요안나, 김숙자 소화데레사, 김순철 안젤라, 김순희, 김순희 요안나, 김애경, 김애자 마르티나, 김연, 김연금 안나, 김연옥 카타리나, 김연호 아우구스티노, 김영삼 요셉, 김영선 실비아, 김영숙 소피아, 김영숙 안나, 김영신, 김영옥 비아, 김영옥 엘리사벳, 김영자 엘리사벳, 김예순 엘리사벳, 김오선, 김옥선, 김옥희 브리지다, 김옥희 안나, 김용선 힐라리오, 평촌성당(김우정 신부), 김우택 스테파노, 김유례, 김윤수, 김윤호 리디아, 김은성 마리아, 김은숙, 김은주 베로니카, 김은진 아녜스, 김이영 릴리아나, 김자연 레지나, 김재선 비시아, 김재숙 엘리사벳, 김재심 유스티나, 김재영 요한, 김재중 안드레아, 김정기 미카엘, 김정순 비비안나, 김정옥, 김정옥 마르타, 김정옥 헬레나, 김정은, 김정호 리드비나, 김종수 요셉, 김준한 프란치스코, 김준희 마틸다, 김중순 안나, 김지유 스텔라, 김진 아녜스, 김진 안젤라, 김진석 베드로, 김진원 스테파노, 김진태 마르코, 김차남 레지나, 김찬숙, 김춘명, 김태규, 김태분 마리아, 김태숙 아가다, 김태연 로사, 김향숙, 김현우, 김현진 그라시아, 김형용 분도, 김형회, 김혜란 안젤라, 김혜미 가브리엘라, 김혜선 아녜스, 김혜영 말가리다, 김혜진, 김화옥 아가다, 김화태 신부, 김효숙 루치아, 김효숙 바울라, 김희수 세실리아, 나미경 크리스티나, 나수옥 지따, 나은설 나탈리아, 남궁인 요한, 남동해 정혜엘리사벳, 남수희, 남순자 유스타, 남영희 카타리나, 남예리, 노수인 리디아, 노영선 라우렌시오, 노월석 데레사, 노인숙, 노진대 세례자요한, 분당구미동성당(노희철 신부), 류수현 세실리아, 류화수 리베리오, 명기숙 안젤라, 문미향 율리아나, 문민경 로사리아, 문상석 요셉, 문승희 리타, 문영숙 엘리사벳, 문우영 클레멘스, 문태균 요셉, 문혜성, 민병택, 민정애 소피아, 민지영 우술라, 바오로딸수녀회, 박경숙 유스티나, 박다희 미카엘라, 박동석, 박마리 마리아, 박명숙, 박명자, 박배선, 박복순 비비아나, 박상향 로사, 박선우 데레사, 박성숙 엘리사벳, 박수연, 박수연 비비안나, 박수정 율리아나, 박순길, 박순옥 사라, 박신영 소피아, 박애경 알비나, 박연선, 박연숙 율리아, 박연우 이냐시오, 박영모, 박영호 요셉, 박영화 글라라, 박은경 가타리나, 박은애 베로니카, 박인규, 박재만 도미니코, 박정규 사비노, 박정은 데레사, 박정필, 박정필 마리아, 박지원 플로라, 박지현 글라라, 박지훈 바오로, 박찬희, 박혜자, 방희숙 로사, 배상복 신부, 배선필 요한, 배영희(정대희), 배지우 아녜스, 백기현, 백원규, 백인선 젬마, 백정자 비비안나, 범계건영38구역, 범계진흥42구역, 변미리, 서복례, 서순덕 말가리다, 서안순, 서옥숙 마리아, 서윤미 엘리사벳, 서정인, 서효경 수녀, 석경화 요안나, 선미영 훈나, 설경임 리디아, 성덕선 아녜스, 손상기 요셉, 손영숙 크리스티나, 손정아 헬레나, 손정혁 요셉 손행자 카타리나, 손현옥 헬레나, 손희정 마리아, 송경숙 세실리아, 송남숙 카타리나, 송명종 바오로, 송영래 엘리사벳, 송영애 헬레나, 송정완, 송혜경(수원), 송혜경(용인), 신귀원 데레사, 신동욱 레미지오, 신복순 라파엘라, 신숙자 리디아, 신숙희, 신순임 신영숙 루시아, 신월이, 신정숙 에스텔, 신중태 세례자요한, 신지예 효주아녜스, 신현성, 신현애 글라라, 신효주, 신희철, 심상원, 심수자 데레사, 심윤정 루시아, 심재훈 베드로, 안관훈 알로이시오, 안문숙, 안수진, 안시현 아나스타시아, 안영애 실비아, 안용기, 안인숙 카타리나, 안재영, 안현숙 루치아, 안혜신 라파엘라, 양귀남, 양명석 스테파노, 양자희, 양정화 베로니카, 양현서 빈첸시오, 엄기준 프란치스코, 여경연 아녜스, 연영순,

오근순, 오문자, 오문자 소피아, 오수영 알베르토, 오윤덕 바울라, 오인순 수산나,
오주영 바오로, 오준희 크리스티나, 오지은 아녜스, 오현미 요안나, 오현자, 오혜승 아녜스,
오혜원, 원수명 글라라, 원영옥 비비안나, 원은숙 루치아, 원종훈, 원화선, 유기성(정유정),
유명희 아녜스, 유미라 유스티나, 유민하 비비안나, 유병철 스테파노, 유상수 로마노,
유석정 로사, 유창영 다니엘, 유태석 미카엘, 윤길운 사비나, 윤선애 안나, 윤수정 아녜스,
윤승원, 윤옥희, 윤인숙 밀드지타, 윤진아 아녜스, 윤택림 유릿따, 윤현묵 미카엘,
윤혜진 젬마, 윤홍선 사도요한, 이강이, 이경순, 이경자 비비안나, 이경자 젬마, 이경희,
이광용 마티아, 이규영 프란치스코, 이근현 마리아, 이금향 요안나, 이기연 요셉피나,
이기찬 요한, 이나경 베로니카, 이남규 아우구스티노, 이남희 미카엘라, 이낭자 마리아,
이만수, 이명옥, 이명자 글라라, 이명자 프란치스카, 이명희 로사, 이명희 미카엘라,
이미순 마리스텔라, 이미순 막달레나, 이미희 사비나, 이민국, 이민규, 이범재,
이병준 라파엘, 이병지 유스티나, 이보라, 이봉숙 마리아, 이부심 로사리아, 이부희,
이서원 루시아, 이석기, 이성인, 이솔 헬레나, 이수현 아가다, 이순구, 이순심, 이순애 루치아,
이순예, 이순자 엘리사벳, 이순정 사비나, 이순주, 이승수 프란치스코, 이승원 요안나,
이승주 레지나, 호계동성당(이승준 신부), 이애경, 이양근 마가렛, 이양순 안나,
이언영 헬레나, 이영란 비비안나, 이영만 미카엘, 이영미 글라라, 이영선, 이영숙 안젤라,
이영신, 이영신 아가타, 이영옥 골롬바, 이영일 헬레나, 이영자, 이영화 미카엘라,
이영희 소화데레사, 이예리, 이예복, 이옥희 마리아, 이옥희 아녜스, 이완숙 아가다,
이용선, 신둔성당(이용화 신부), 이우옥 세실리아, 이원미 실비아, 이원희 마리아,
이윤수 디오니시오, 이윤희, 이은 세실리아, 이은경, 이은경 베르릴리아, 이은경 효임골롬바,
이은숙 젬마, 이은순 비안나, 이은신 노엘라, 이은정, 이은주 요셉피나, 이은희 마르티나,
이인영 소화데레사, 이인자 로사, 이인형, 이재식 클레멘스, 이재영, 이재영 요셉피나,
이재희 카타리나, 이정민 아녜스, 이정숙 아녜스, 이정옥 발비나, 이정은 안나,
이정자 카타리나, 이정하 파라, 이정훈 안젤라, 이종명 그레고리오, 이종빈 마리아,
이종숙 제노베파, 이종식 안나, 이종원, 이준재, 이지란 노엘라, 이진미, 이진호 미카엘,
이찬상 베다, 이춘애 젬마, 이필영 베네딕다, 이헌상 바오로, 이현숙, 이현옥 안젤라,
이혜경, 이혜경 율리아, 이혜조 엘리사벳, 이혜진 아가다, 이화주, 이황규, 이희수 루시아,
이희정 아녜스, 임 아녜스, 임기식 베드로, 임미영 비비안나, 임소연 아녜스, 임숙희,
임윤정 요셉피나, 임정빈 미카엘, 임정은(박연성), 임해숙 라파엘라, 임희정 루치아,

장강일 요셉, 장경희 세실리아, 장광미 가브리엘라, 장복선, 장수희 안젤라,
장옥희 스테파니아, 동탄능동성당(장유 신부), 장유순 에메리따, 장은실 벨라뎃다,
장재연 데레사, 장재용 요셉, 장진국 루수, 전경순 프란치스카, 전계성 알렉산델,
전금순 아나다시아, 전민경 크리스티나, 전병문 바오로, 전병일 베드로,
전상근 토마스아퀴나스, 전수아 엘리사벳, 전순미 안나, 전안나 안나, 전영순 아녜스,
전창남, 정경숙 프란치스카, 정다영 라우렌시아, 정명례 수산나, 정미숙 세실리아,
정선자 라파엘라, 정성일 요셉피나, 정소옥(박혜린), 정수연 세실리아, 정수영 아녜스,
정수영 헬레나, 정숙자 크리스티나, 정승희 아녜스, 정연 가브리엘, 정영수,
정영희 아멜리아, 정옥금 글라라, 정용옥 로사, 정원일 스테파노, 정은주 스텔라, 정인석,
정지윤, 정필자 요셉피나, 정현섭 유스티노, 정현애, 정현옥 마리아, 정혜경 모니카,
정혜경 아가다, 정혜선 율리아나, 정훈채 마리아, 제은경 바울리나, 조경선 안젤라,
조금현 막달레나, 조동식 구네군다, 조동환 마티아, 조말자, 조병규, 조병우 요셉, 조성제,
조세연 안나, 조영희 베로니카, 조용숙, 조은희 플로라, 조인숙, 조정숙 막달레나,
조진희 마르첼리나, 조철우 바오로, 조춘자, 조효연 요안나, 조희자 안나, 최필웅,
주종수 토마스, 주호경 로사, 지금숙, 지미경 데레사, 지서은 아녜스, 진계영, 진연숙 아녜스,
차윤정 글라라, 차준순 글라라, 채광성 다미아노, 천세영 신부, 천은서 아나스타샤,
천주의섭리수녀회, 천진암갈멜수도원, 최경옥 프란치스카, 최경자 데레사, 최길순 안나,
최명숙, 최명옥 마르타, 최명주 마리아, 최명희 안나, 최미숙 율리아나, 최민희 도미니카,
최성신 실비아, 최성자 데레사, 최영섭 아드리아나, 최영화 스테파노, 최용하,
최원일 안드레아, 최원자, 최원홍, 최윤실 모니카, 최은미 세실리아, 최이재 모니카,
최정아 크리스티나, 최정애 가밀라, 최정재 율리아나, 최정희, 비봉성당(최종환 신부),
최준영, 최중설, 최지민, 최지윤 크리스티나, 최찬 아오스딩, 최태자 파라, 최현순 헬리나,
최홍자 아녜스, 최화자 마리아, 추경태 신부, 추민호 마태오, 하경화 카타리나, 하명옥,
한경애 데레사, 한금정 젬마, 한봉희 아가다, 한선희 안나, 한설하 안젤라, 한성연,
한수정 율리아나, 한영미 미쉘, 한영민, 한영숙 아델라, 한은비, 한인애 로사, 한정애,
함문숙 엘리사벳, 허승회 안토니오, 허융자 헬레나, 허창균 젬마, 홍남례 베로니카,
홍미경 헬레나, 홍봉균, 홍성란 안젤라, 홍성영 야고보, 홍승순 루피나, 홍여옥 스테파니아,
홍은실 엘리사벳, 홍정수 율리아나, 홍정은, 황경희 사비나, 황기분 수산나, 황문영 루카,
황미숙 소화데레사, 황을령, 황인영 로사리아, 황일영, 황정예 스텔라, 황혜진 제노비아

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Korea Christian Thought Institute

후원금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출금계좌예금주 성명/세례명	(축일 월 일)	예금주 주민번호 (사업자는 등록번호)	(사업장명:)		
예금주 주소					
예금주 연락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출 금 일	매월 일		
후원 기간	년 월 ~ 년 월	후원 금액	매월 일		
신청인명		신청인 연락처		예금주와의 관계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필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수집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보유기간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까지**
설 명	신청인은 위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상기 청구기관(이용기관)**
제공항목	[필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제공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자동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보유기간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까지 (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관)**
설 명	신청인은 위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니 올바른 연락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인 또는 서명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 32, 27

The man then said, "Let me go, for it is daybreak." But Jacob said, "I will not let you go until you bless me."(Genesis 32:27)

노엘말씀, 김유경(노엘라)

성모영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월25일;
2024년은 축일 변동 4월8일)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1,28)

이콘에서 성모영보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사건이 표현되는데. 이 이콘에서는 성모님은 성전에 봉헌할 붉은 휘장을 짜고 있을 때 성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다.
왼편에는 날개를 막 접고 방금 막 도착한 듯 옷깃이 날리며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1,38)

오른편에는 성전 앞에서 자주색 가운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는 '하느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Theotokos)'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다. 성전에서 휘장을 뜨고 있던 성모 마리아는 다소 당황한 듯 그러나 뭔가 생각에 잠긴 듯(루카1,29) 그리고 겸손의 자세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리고 천상에서 강복하시는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성령)으로 쏟아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15*91cm, egg tempera on board, 2019, 이정은(마리아) (icon_evangelist@instagram.com)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성부와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원의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성 니콜라스 카바질라스 St. Nicholas Cabasilas

연구소 소식

2023. 8. 1 ~ 12. 31

시노달리타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하느님안에서 머물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기다림의 뿌리는 인내이며, 타인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기를 인내하는 것이 희망이며, 그 모든 희망으로 하느님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길인 것이다. – 최영균시몬 소장신부님

여름포럼

여름학기특강

추계 한국 가톨릭 문화원 세미나에서 소장신부님의 '탈종교화 시대의 가톨릭 신앙' 발표

서정동성당 평택지구 소공동체교육(한창현모세신부님–연구위원)

오산성당 대림특강

범계성당 대림특강

후원자들과 함께한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히라도 다비라성당)

가을학기 종강피정

겨울포럼–'에크하르트와 선'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성탄시기 선물처럼 찾아온 봉헌하는 아기

눈 치우시는 최영균 소장신부님

연구소 설립32주년 미사

연구소 설립 32주년 미사

축복이 가득한 주일~

12월 3일 대림 첫 주일에 연구소는 설립 32주년 미사를 하였습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 가톨릭교회의 역사 안에서 연구소 설립 3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사랑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복음화에 더욱 힘쓸수 있도록 학술 문화를 부흥시켜 교회쇄신에 도움이 되는 연구소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연구소에 사랑의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안에서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 마음에 드는 예수생각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32년을 열심히 살아온 연구소가 새해를 맞이하며 시작하는 33주년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의 마지막 시간을 연상케 함으로써 우리의 열정과 각오의 옷 깃을 새롭게 여미게 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여정을 새로운 열정과 방법으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연구소 봉사자 장광미 가브리엘라

한 해 교회전례의 삶을 연구소에서 보내며…

장광미 가브리엘라
연구소 사목회 총무

연구소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생각 공동체”이다. 2023년의 전례주년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연구소의 앞날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소장신부님과 그 열정의 배에 나 역시 몇몇 봉사자들과 함께 승선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며 다은 학당, 포럼 그리고 연구소의 6월 축제인 학술심포지엄. 소장신부님의 후원미사와 특강에 찾아나서는 후원행사 등.

무엇보다도 연구소 후원자들의 연이은 발걸음에 무척 기뻤고, 시노달리타스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소장신부님과 부소장 신부님의 관심을 넘어선 환대의 영성에 봉사자들 역시 무척 보람있는 한 해를 보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에서 나오는 사랑, 소속감, 평화가 흘러나오는 샘이 바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예수 생각공동체인 것 같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족한 한계도 있지만, 봉사의 구심점인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결핍도 봉헌하고 싶다. 좌충우돌하며 분주했던 한 해였지만 연구소에서 보낸 나의 시간이 연구소의 밝은 내일을 만든다는 믿음을 가져본다. 우리말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연구소 봉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도 돕고 + 함께 돕는 모든 이들도 돕는다“ 라는 교훈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해 본다.

’바람은 불고 싶은데로 분다.‘(요한 3,8)

연구소의 꽃피는 봄날..... 봄꽃비가 흩날리는 날에, 꽃향기의 바람을 따라 이 곳 연구소가 있는 왕림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 날리는 두메꽃으로 다시 피어보지 않으실래요?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루카 22,32)

연구소에서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례부, 교육부, 홍보부, 후원부, 까페봉사,
웹 디자인, 교정교열, 외국어 봉사자, 성화작가**

시간과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해주실분은 연락 바랍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연구소 총무 : 장 가브리엘라 010-5391-0229

2024년도 다은학당 시간표

	다은 학기	포 럼
봄	4.9 -6.11 (매주 화요일 1:30-3:00, 10주)	3. 21(목)
여름	8.6-9.3 (매주 화요일 1:30-3:00, 5주)	6.27(목)
가을	10.8-12.12 (매주 화,목요일 1:30-3:00, 10주)	9.26(목)
겨울	25.1.7-3.20 (매주 화,목요일 1:30-3:00, 10주)	12.26(목)

(본 시간표는 향후 연구소 운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정 프로그램

10:30 – 11:00	환영 tea time
11:00 – 11:50	강의
11:50 – 12:00	오후기도
12:00 – 13:30	점심
13:30 – 14:00	고해성사
14:00 – 14:40	묵상기도
14:40 – 15:00	휴식
15:00	파견미사

하루피정

피정인원 – 4명이상
피 정 비 – 10명미만시 / 인당 30,000
10명이상시 / 인당 20,000

1박 2일 피정

피정인원 – 6명 이하
피 정 비 – 인당 5만원
(인원추가시 별도 문의)

* 미사, 강의 있음/ 주방사용, 바베큐사용
(피정비에 시설 사용료 5만원 포함금액입니다.)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Korea Christian Thought Institute